

100% 복음을 가진 자 갈라디아서 1:6-10

복음이 100% 가지는 것은 쉬운 것이다.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면 100% 가진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성취된다. 그러면 백프로 복음이 현장에 나타나고 응답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100%. 오늘 이야기는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세상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백프로한 것이다. 그것이 현장 백프로이다. 사도 바울은 백프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 250년 이상 내려가면서 이루어질 복음운동의 시스템을 확실히 갖췄다. 지금 현재 보면 그것 때문에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기독교가 나타나서 진짜 100프로 시스템이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백프로다. 될 일은 될 것이다. 누가 막는다고 안되지 않는다. 막을 자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백프로이다. 우리는 그냥 거기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이 백프로 되면 내 인생이 백프로 인생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환경 때문에 안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이미 백프로라는 것을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마음껏 누리기 바란다. 선포하고 전쟁 붙어야 한다. 저주에서 해방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전부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그런데 따라갈 이유가 없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뱀의 머리 반드시 박살이다.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 이미 이겨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남았을 뿐이다. 분명히 우리는 남미 끝까지 가는 것이다. 미국에도 분명히 믿이 열릴 것이다. 성경의 복음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야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는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복음 안에 오기 전에는 믿으려고 노력했다.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참된 복음을 알면서부터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 많은 응답과 역사를 주셨다.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 만큼은 백프로 정복하게 되어 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언약을 잡고 승리하고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자꾸만 사단이 공격한다. 내가 안 믿어도 어짜피 되어지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 안 믿었다. 아들 낳을 것을. 사라도 안 믿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안 나오는게 아니다. 그냥 안 믿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나오고 계획은 성취되었다. 안 믿어져도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을수는 있다. 그래서 그 언약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보이면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응답이 중요한 것이다. 창세기 1장 27-28절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 말씀이다. 인간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이며 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질문만 하다가 죽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 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사람들은 인구 올라간다고 걱정하지만 괜찮다. 온 지구에 사람이 꼭 들어차서 움직일 자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먹여 살릴수 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분이고 권세이다. 이 놀라운 것이 깨어진 것이 원죄이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다. 완전히 회복이다. 이것을 향해 사는 사람은 전부 시대적인 권세를 누렸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연장선 상에 있다.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에서 이 일을 하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냥 내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사를 타고 내려오는 전체적인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전하면 된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이다. 이 약속의 피이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뱀의 머리 박살, 그 피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다. 잘 안되면 글자를 써 보는 것이다. 여하튼 이것이 언약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르게 아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 약속의 피가 너의 인생을 저주에서 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임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임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회복된다. 치유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영적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 영적 문제는 약 없다.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서 약 먹으면 낫는 경우도 있다. 정신문제는 약 먹어서 안 낫는다. 갈수록 참된 복음 가진 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현장, 내 삶속에서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약속의 피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게 된다 끝까지, 될 때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백프로. 답이 났다. 양보를 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 복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백프로이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는 것이다. 깊은 목상이 있기 바란다. 말씀대로 한다. 말씀에 써 났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것을 목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들어와 언약이 되어지면 그 때부터 사람이 달라진다.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은 천지차이다. 언약이 되어 있다. 약속의 피가 내게 언약이다.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가 내게 언약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살아갈 때, 계속 다 다르다. 24에 가게 되면 두 말 할 것 없다.

1. 백프로 복음을 가진 자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다.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을 말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큰 지역일지도 모르겠다. 카운티보다 큰 개념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다. 데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같은 이름들이 나온다. 일차 전도여행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여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선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버렸는데, 그 주위의 제자들이 찾아보니 다시 살아났다. 일어나자마자 병안에 다시 들어갔다. 거기 디모데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엉뚱한 사람이 있었다. 사도바울은 믿음으로 끝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 답이 나지 않은 초신자, 헬라인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 뿐이라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놓고 보라고 하니깐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붓을 들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주 단호하다. 내 생각에는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만한 표현이다. 9절에는 한번 더 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번 더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는 인간은 전부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에 근간이 된 말씀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가다 보면 더 깊은 복음에 대한 말이 나올 것이다. 오늘 일장, 서론인데 무섭게 시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천사라 할 지라도 저주를 받을 지어다. 누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을 할 수 있겠나?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선포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복음은 간단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 깊고 완전하다. 복음은 간단하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뱀의 머리 박살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알 필요가 없다. 복음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은 간단하다. 이제 남은 것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여하튼 사도 바울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있다.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이유도 없다. 율월절등 세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 전부다 성취되었다. 이런 것 다 안해도 된다. 모든 것은 전부다 참 복음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 지나가는 것이다. 어떤때는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는 말도 있다. 율월절이나 할례 같은 것들이다. 또 약속의 피제사, 창세기 3장 21절이다. 이 피제사 없으면 만나는데 불가능이다. 기도도 안되고 예배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된다. 그런데 이걸 안해도 되냐는 것이다. 유대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해도 돼.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 보혈로 성취된 것이다. 이제는 이걸 하는게 아니라 보혈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것이 다 들어 있는데, 이걸 또 하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자란다는 말인데 말이 되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학자 정도가 아니라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안해도 돼 하고 끝나는 것이다.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피제사 안해도 돼, 전부 과정이었다. 이제는 그의 죽으심과 피흘리심으로 전부 완성 되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완성되었어. 창세기 3장 15, 3장 21절, 날짜, 안식일 다 안지켜도 돼. 예수님 안식일 안 지켰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했다.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안지켜도 된다. 안식의 주제는 안식이다. 안식은 그리스도 보혈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 어디에 안식이 있겠는가? 안식일에 안식을 안하는 안식일이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확실히 선을 그었다. 제자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10-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

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무슨 날, 해같은 것이 있다. 레위기 23장 읽어보라. 거기에 회년, 안식년 이렇게 나온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번 땅을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이다. 포도나무를 농사 안 짓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열매가 열린다. 그러면 그 열매는 나그네, 종들, 너도 먹는 것이다. 그래도 안 죽는다는 것이다. 안식년 7번 하고 나서 다음해인 50년째는 회년이다. 그때에는 노예를 다 그냥 보내는 것이다. 해방이고 구원이다. 안식년에 하지 않고 안식후 첫날이다. 그래서 50년째이다. 이런거 하나도 안 지켜도 돼. 너가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게 헛될까봐 겁난다. 참으로 놀라운 언약인데,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미국은 최고의 지식의 나라이다. 신학에 대해서도 엄청난 지식을 계속 발전시켜서 결국 이상한 곳으로 가 버린다. 미국 복음화의 뜻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알고 누림으로 증인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ph.d가진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는 그 분들이 가진 분야에서 신학분야에서 박사 이상이 될 필요가 없다.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다. 성경을 몰라서 공부를 계속 해서 그리로 가 버린 것이다. 복음을 알면 누구든지 누리고 증인되고 싶지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게 미국의 큰 병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고쳐야 한다. 참으로 놀라운 언약인데, 우리가 전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없다고 확인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어렵지 않다. 내가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쉽다. 그리스도 3직이 복음이다. 성경을 다 알아야 복음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래서 복음은 간단하다. 인생도 간단하다. 복음으로 살면 되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이 많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다. 정말로 믿으면 정말로 다 아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100%이다. 우리가 하 나도 안 믿어도 복음은 완전히 성취된다. 이것은 다른거 필요 없다는 말이다. 복음 말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답 난 거이다. 복음은 유일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이 백프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기준은 복음이니깐. 복음은 이해에 대한 나의 정도이니깐. 기준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의 사람인가이다. 구분을 해야 할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러면 내가 경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는 끝까지 가야 한다. 누림의 깊이는 무한정 끝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 끝까지 가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다. 복음은 저주에서 해방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 없다. 있다면 더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문제라는 것은 복음을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절대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문제를 주고 싶지 않으시다. 문제를 통해 축복을 주기 원하신다. 문제를 먼저 주는 이유는 문제 이후 축복을 주기 위한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안되는 것이다.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다. 이런 것은 옴기를 통해 보았다. 하나님은 이미 옴에게 두배 축복하기로 정해놓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놓고 사단을 불렀다. 그리고 사단을 통하여 옴을 시험하게 하였다. 결국 옴이 하나님앞에 회개했다. 회개 한 후에 두배의 축복을 주었다.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으니깐. 이것은 굉장한 그림이다. 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없이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축복만 주면 망해버린다. 구분을 할 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백프로 복음이기 때문에 백프로 저주에서 해방이다. 하나님의 피가 세상의 문제가 해결하는데 모자라겠는가? 절대 아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답은 그리스도이다.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러면 눈 열려서 여러 가지 응답을 통해 24를 향해 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커진다. 그냥 일만 하는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세계처럼 커진다. 옛날에 비하면 정신신간 소리를 하고 있다. 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그러나 거기로 가야 한다. 그렇게 되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 이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백프로 사단의 머리를 깨게 되어 있다. 내가 못 깨도 하나님이 깨신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누림은 모자라지만 믿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깐. 이것이 우리의 배짱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못한다.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렇게 안하고 살 인간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인간이 구원 받겠는가? 계속 죄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다 하신다. 똑같은 원

리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백프로 복음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놀라운 일이다. 주셨으면 이제 뭐가 알아야 한다. 복음은 저주에서 해방이다. 더 이상 저주 없다. 모든 저주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손 하나 못 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때 당당하게 서서 망대처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면 된다고. 완전 답이라고. 이 약속의 피를 잡아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당연히 그것을 통해 백프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깊이 기도로 들어가서 24기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상의 증거 백프로 된다. 내가 가진 언약이 현장에 나타난다. 반드시 당연히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준비한다. 시스템이 준비된 사람을 만드신다. 그 사람이 제자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망대이다. 성경의 약속한 그대로이다. 렘넌트 7명 포함한 모든 성경 인물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 언약을 가진 자

과연 복음이 백프로일까? 정말로 복음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진짜 저주와 문제는 끝났는가? 중요한 질문이다. 진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라. 정말 내 인생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할수 있겠는가? 질문을 계속 하라.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적으로 답을 주신다. 구원도 일대일이다. 이런 모든 깨달음이나 응답도 전부 일대일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답이 나와 할 질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복음을 누리고 지속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 진짜 복음은 저주에서 해방이다. 정말로 복음을 창세기 1:28절처럼 정복이구나. 복음을 누린 자는 계속 확인을 하게 된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공감하게 된다. 이 복음을 누릴수 있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게 된다. 처음엔 힘이 든다. 그런데 되면 안되는 계속 하는 것이다. 자연히 더 깊이 복음이 언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개인 언약이 되는 것이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이다. 당연히 요셉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들었지. 아버지가 일도 안 시키고 옆에 놓고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다. 야곱은 영적 축복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간이다.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요게벳이 젖먹이 모세에게 만나 안되나 계속 이야기 했다. 참 놀라운 은혜이다. 그게 젖먹이 모세 안에 들어가 글로 쓴게 창세기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꿈에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꿈속 메시지가 평생 기도제목 되었다. 그게 24시간 언약기도가 되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 없어. 현장에서 그 약속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300프로인 것이다. 복음 확실히 알았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다. 요셉의 시스템은 애굽의 정치구조이다. 남의 나라 가서 총리되었으니깐. 이 요셉 한명이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 놀라운 일이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요셉만 알았다. 그러니 요셉만 고는 막을수가 없는 거이다. 노아 시대에 비가 올것이라고 해도 못 알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가르쳐 줬다. 방주를 만들더라. 그래서 노아는 안 죽는 것이다. 물론 아들 며느리 안 죽었다. 그러나 그 뿐 아니라 짐승들도 안 죽었다. 노아와 함께 있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 포인트가 뭔가? 그게 언약이고 약속의 피제사이다. 이것을 가진 자는 이렇게 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다. 우리도 미국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남미 끝까지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울처럼 백프로 답 나면 될 것이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인간들이 너는 사도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왜 율법을 말 안하냐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12절에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음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짜 미국에 문 열리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남미는 나라담당 바로 가는 것이다. 이것 말고 죽을 때 남는 것 없다. 젊은 사람도 죽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백프로 언약 전문성 가져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완전 시스템, 절대 망대, 우리에게 많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는다. 다시 한번 언약 잡고 승리하는 한주간 되기 바란다.